

##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물사 구성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최 용 규 · 임 용 덕  
한국교원대학교 · 안산원일초등학교

### I. 序 :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역사'.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그 주인공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다가오는 미래로의 시선을 반추하게 하는 역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주인공은 역사적 모습, 행위,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간이며, 과거는 인간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된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인 교실에서의 역사교육의 방식이나 형태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분명해진다. 인간을 중심으로 그 인간의 생각, 행위, 그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 중심의 역사교육은 그 당시 살았던 '인간', 즉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사회상, 인간상, 시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 역사 수업, 또 그 수업의 주요한 교재인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과연 '역사 속 인물'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단순한 사건 설명에 차용되는 인물의 등장 수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지 못한 자료로 등장하는 인물 관련 초상화 및 연표, 유물·유적과 함께 제시되는 방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인물'의 깊이 있는 맥락적 이해에 터하여 당시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간'을 재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인물 제시형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교과서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만 과거의 역사에 학습자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열쇠는 '인간'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의 역사를 만나게 해 줄때만이 초등학생들에게 역사는 살아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초등 사회과 교과서 속 인물 제시 방식은 딱딱하게 열기설기 조직되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인간의 발견을 막고 있다. 살아 있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천편일률적인 사건 전개에 의해 사회과 역사영역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이 반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본고에서는 초등 사회과에서의 인물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후, 교과서에서 인물사 구성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향해야 할 역사 인물에 대한 서술 및 자료 제시 방식을 모색하면서 역사 인물들이 학습자들에게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사의 교과서 구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 II. 초등 사회과 역사교육에서의 인물사

### 1. 역사교육에서의 인물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

역사는 다름 아닌 인간의 역사이며 그 주체 역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이해는 역사인식의 기초가 되며, 역사를 살아있는 과거로 파악하는 수단이기도 하다(강우철, 1974:335). 최근의 역사교육이 단편적 지식전달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하고, 나아가 역사교육의 본질적 목표인 역사적 사고력 등의 역사의식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물사의 내용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물학습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는 학교급별로 제시한 인물지도의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연구성과들이 있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은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인물학습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3차 교육과정기에 인물학습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 일본으로부터 인물학습 방법을 도입하여 인물지도 방법과 인물 분석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기 시작하였다(송춘영, 1975;1977;1981;1982). 4차 교육과정기에는 당시 민족의식 교육이 강조되었던 시대사조의 영향을 받아 주로 민족의 주체성 함양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인물학습에 있어 분야사적 접근이 인물학습의 지도방법으로 자리잡았다(김환길, 1990). 5차 교육과정기에는 아동의 역사의식 발달 단계에 관심이 증대되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시대별·영역별 분산접근과 교과서 분석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핀 뒤 효과적인 수업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행해졌다(송춘영 외, 1995; 김홍수, 1996). 6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인물선정 기준 마련과 인물학습이 다른 교과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전하였다(송춘영, 1997; 박동원, 1996; 김홍수·최용규, 1998). 7차 교육과정기 이후에는 역사교육의 본질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물학습을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다(최용규·안재경, 1999; 이명희, 2002). 이러한 인물학습 연구들은 앞으로 효과적인 인물학습을 위해 단순한 인물의 개량적 분석과 이를 통한 수업모형의 제시를 넘어서 인물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된 인물에 대해 교과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술하느냐하는 교과서 기술내용과 편집의 문제, 즉, 새로운 교과서 편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구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물사

인물사와 사건사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역사를 다루는 두 주체는 사실 사건 속에 인물이 존재하고, 인물을 통해 사건을 설명할 수 있기에 따로 분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사건사는 무미건조하게 인물의 역할이 배제된 채, 사건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이고, 인물사는 사건의 흐름 속에 인물의 역할, 개성, 행위들을 통해 역사적 과정의 흐름이 더욱 부각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규정짓고자 한다. 이는 현재 교과서에서 인물사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들이 위에서 언급한 사건사와 같이,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

에 이를 구분함으로써 인물사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5차 교육과정기 이래로 초등 사회과에서는 지역사, 생활사, 사건사와 함께 인물사라는 기본 원칙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는 여전히 국가 전체의 상황을 인물을 차용하여 서술할 뿐이었다.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그들의 업적과 행위가 나열될 뿐, 그 인물의 행위 발생 원인, 그 당시의 상황, 그 인물의 의도 및 판단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러티브 구조도 일부분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었으며, 단편적 지식의 나열에 의한 암기만을 중용할 뿐이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독특한 개성, 성격과 함께 판단력, 과단성 있는 인물들이 적고 있는 사건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건의 흐름 전체 속에서 인물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인물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역사적 흥미와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서술을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인물들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5학년 1학기에서는 조선 초기 사회,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세종과 이순신, 5학년 2학기에서는 정조의 개혁 의지 등을 통해 의사결정, 판단력 등이 드러나고 있는 단원 등에서 띄엄띄엄 나타난다. 대부분은 역사적 사건에서 인물이 드러나기보다는 사건을 설명하는 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불과했다. 역사적 사실이 중심이 되는 서술이 아닌, 역사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서사적 구조가 주가 되는 내러티브적 서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인물의 판단력, 개성, 의지 등에 의해 행위, 의사결정 등이 나타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지, 단순히 연표에 인물이 언급되는 수준, 사건을 서술한 가운데 인명이 언급되는 것은 인물사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 구성이 되지 못한다.

### 3. 학습자의 경험을 고려한 인물사의 구현 논의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손쉽게 다가오는 역사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기존의 통념 및 많은 연구 결과, 그리고 주변의 초등학생들이 역사를 접하고 있는 행위들에 비추어 본다면,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거나 듣거나 보는 형태를 떠올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사 수업과 교재에서는 이 역사 인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들의 사적 접근 및 생각이나 행위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서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한다.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형태의 교과서 서술이 아닌, 많은 부분에서 무미건조한 사건들의 나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그치고 있다. 최근, 내러티브, 역사 탐구, 의사결정, 추체험 및 감정이입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교육을 위한 방법적 측면의 논의들이 등장하면서 학습자들이 역사를 이해하는 행위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교과서 구성에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정된 시각에 의해 학습자들의 역사 인물 이해에 도움을 주는 문학적 표현, 해석적 관점, 가치의 개입 등의 요소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선주(2011)의 5학년 역사 내용 구성 방향을 모색한 연구에서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연

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한국의 4, 5학년생이 역사에서 흥미를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인물이 관련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대체로 갈등 구조의 내러티브로 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인간의 다양한 본성을 확인하는 방향에서 읽고 구성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역사를 구체적인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는 내러티브가 초등학교생들에게 익숙한 문화적 도구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아동들은 역사를 인물의 업적, 인물들과 관련된 과거의 일로 개념화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역사를 구체적인 인물의 행위와 사고가 담긴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어린이용 역사책, TV 드라마, 교과 내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역사 지식'을 단순 '정보'로 생각하여 객관적 사실로만 파악하는 문제도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를 내러티브식으로 내용을 구조화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러티브 서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의 교과서 구성이 요청된다는 시사점으로 귀결된다. 초등학교생들이 역사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 인물과 그 인물의 행위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내러티브적 구조를 반영함과 동시에 비공식적 역사내용의 선지식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생들의 역사 이해에 대한 오류를 인지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점과 인식 방법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자의 경험을 고려한 교과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인물의 생각과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시의 역사적 맥락은 물론 인물의 견해, 판단, 선택 등이 드러날 수 있게 교과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생들이 역사를 인식하는 데에 인물의 개인적 성품이나 결정에 주목하다보니, 역사적 맥락이나 행위의 발생 원인인 인물의 사고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역사의 단순 정보만을 익히고, 인물 행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감정 표출 등에 대한 생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여러 맥락적 이해, 그리고 사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의 구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방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역사에 대한 선지식 상황에 대해 편승하여 비공식적 역사책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역사학습을 위해 흥미만을 강조하여 역사교육의 주요한 여러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반면에,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평면적 서술과 구성, 역사학의 연구 결과만을 나열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역사 학습에 대한 이해와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학습자로부터 역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선지식과 흥미를 고려하면서도 교과서로서의 교육적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교과서 구성상에 인물과 관련한 사건과 시대상을 중심으로 내러티브적 구성 요소를 반영함과 동시에 교과서로서 역사 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이 담기는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장치의 방향성은 바로 수업 전개 과정에서의 역사적 사고력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사료 및 학습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근거로 한 발문, 활동 방법, 과정의 제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인물을 끌어들이며 질문을 던지고, 학습자가 사고하도록 이를 염두에 두며 기술해야 하지만, 인물 사건의 내용에서 발췌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인물을 교과서에 제시할 때, 의도된 서술 혹은 구성이 필요하지만, 단순 정보 제공으로 인물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지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 탐구 자료로서 인물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미비한 것이 큰 원인이며, 인물과 관련된 자료는 보충자료로서 그 엄격만을 소개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물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사건 전체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탐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에 규정된 인물사 구성 논리

3차 교육과정 이래 초등 사회과는 인물사·생활사 중심 역사교육의 큰 틀을 유지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11년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 의하면 초·중·고 공통으로 한국사의 모든 시기를 아우르는 통사의 형태로 구성하면서 학교급별 위계성을 갖추기 위한 계열화 방안으로 초등의 경우, 일화 및 역사 인물 이야기 중심, 중학교의 경우, 정치 사건을 중심으로 한 문화사 요소 연계, 고등학교의 경우, 시대별 사회 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러한 학교급 간 계열성에 따라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 교육과정의 특징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 표 1 >과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역사 학습 내용의 학교급별 계열성과 내용 구성 원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표 1 > 역사(한국사) 영역의 학교급별 내용 구성 원칙(박진동 외, 2012:23-24)

| 학교급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내용구성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인물의 행위 의도나 동기, 사고 내용 중심의 이해</li> <li>시대별, 신분별 사람들의 생활 이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경, 원인, 과정, 결과 중심의 정치적 사건 설명</li> <li>시대별 문화적 성과 파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경제사와 사상사, 대의 관계사까지 포함</li> <li>구조적 접근</li> </ul> |

초등학교 성취기준은 역사 인물 및 생활상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구성에 초점을 두었다. 중학교는 정치·문화적 발전 과정과 연대기 파악, 고등학교는 국내 사회 변화 및 국제 관계를 중심의 진술에 의한 내용 구성 원칙이 마련된 것이다.

이 중 초등학교의 역사영역 교육과정은 2007개정 교육과정의 뼈대를 유지하면서 전체 내용 요소를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을 34개에서 27개로 감축하여 내용요소를 줄이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와 함께 인물사 중심으로 서술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학습자들의 직접 활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교육과정(2011. 8. 고시<sup>1)</sup>)의 초등학교 역사영역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초등에서 기존의 통사 체계를 유지하되, 내용을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쉽게 구성(이야기 식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성진 한국사”)하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위계를 고려한 역사교육과정 개발과 쉽게 재미있는 역사 교과서의 개발을 추구한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되기도 한 반면(민윤, 2011), 일화, 인물 중심의 구성 방향이 제시되면서 2007개정

1) 2011. 8 고시와 2012. 7에 수정 고시된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역사영역의 내용이 동일함.

교육과정에서 강조된 생활사 관련 내용을 축소, 배제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방지원, 2011). 이런 논란 속에서도 초등에서의 역사적 서사 구조를 도입하여 내러티브적 특성을 살려 역사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인물을 주요 소재로 한 편성으로서 특정 인물 이름을 성취기준에 좀 더 많이 적시하였다는 점<sup>2)</sup>이 특징으로 나타났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양정현, 2011). 그러나 특정 인물 이름의 적시 과정에서 선정 기준 제시나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인물이 적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그 어느 곳에도 드러나지 않는 점은 의문시된다. 이는 교육과정 해설서가 개발되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그 이전에 시안 개발 과정 등에서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각 단원별로 어느 단원에서는 인물이 적시된 반면, 어느 단원에서는 주요 인물로 통칭하여 적시하지 않는 등 성취기준 제시에 있어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이유는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과 교육과정 고시안의 성취기준<sup>3)</sup>을 살펴보면 유추할 수 있다. 여성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청회안에 추가적으로 신사임당을 적시하였으며,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부분은 적시했던 4명의 인물을 제외시켰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인물들이 추가·누락되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 제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인물의 적시를 위한 선정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 근·현대사 부분에서의 인물 적시에 대한 편향성 문제제기의 논란의 중심에서 빚겨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드러난 결과이다<sup>4)</sup>. 또한, 교육과정의 연대기적 구성에 어긋나게 조선 후기 단원에 조선 전기 인물인 '신사임당'이라는 인물을 추가시킴으로서 여성사를 부각시키는 주제사적 성취기준에 오류를 발생하게 만드는 요인을 야기하였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적시된 인물 선정 및 인물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 정치사적 내용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인물 선정 기준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sup>5)</sup>에 있어서도 정치사적 인물 외에 사회·경제, 과학·기술, 문화적 발전과 함께 소외된 외국인·민중·지역사회의 인물들에 대한 균형있는 인물의 선정을 강조했으나,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배제 내지 미약한 선정의 결과는 차후 교과서 내용 구성 과정에

2) 2009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상에 등장한 인물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단원: 단군, 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대조영, (2)단원: 견훤, 공예, 완건, (3)단원: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세종, 이순신, (4)단원: 허준, 효종, 안용복, 신사임당, 허난설헌, 김만덕, 정조, 정약용, 홍경래, (5)단원·(6)단원: 인물명 미적시.

3) < 표 2 > 2009개정 사회과교육과정 역사 인물과 관련된 성취기준의 공청회안과 고시안의 비교

| 공청회안  | 고시안   |
|---|---|
| - 허난설헌과 김만덕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br>- 유관순, 김구, 윤봉길, 김좌진 등 주요 인물 이야기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독립군의 전투 등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독립 운동을 탐구한다. | -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만덕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br>- 주요 인물 이야기를 통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독립군의 전투 등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독립 운동을 탐구한다. |

4) 원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종중의 노력,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논의 등에 따라 사회과 역사영역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수록 여부 및 서술 내용이 달라지는 등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인물을 어떻게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김정호 외, 2006:33).

5) 교육부(1996), 김흥수·최용규(1997), 최용규·안재경(1999)에서 인물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생활사, 인물사 중심의 내용 구성과 대비되어 < 표 3 >과 같이,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물사·일화 중심의 내용 구성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 표 3 >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영역의 인물과 역사내용과의 관련성 분석

| 2009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5~6학년군 역사영역)   | 성취기준 상에서의 인물과 역사내용과의 관련성 분석  |
|---|--|
| <p>역사 영역의 경우, 선사 시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의 <u>역사와 문화 및 생활상의 변화</u>를 대표적인 인물과 유물을 통해 파악한다. 고조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임을 알고 <u>삼국,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대표적 인물</u>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 (후략)</p> <p>(1) <u>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u><br/>선사 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파악하고, 고조선 성립의 의미를 이해한다. <u>고구려·백제·신라,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와 문화</u>를 인물 이야기 및 유물과 유적을 중심으로 파악한다.</p> <p>② <u>단군의 건국 이야기</u>를 알고, <u>고조선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u>임을 이해한다.</p> <p>③ <u>역사지도와 인물 이야기</u>를 통해 <u>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u> 과정을 파악한다.</p> <p>④ <u>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대조영</u> 등을 중심으로 <u>삼국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건국</u>을 이해한다.</p> <p>(2) <u>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u><br/><u>고려 시기의 역사를 인물의 활동</u>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여러 차례의 외침을 극복하고 주변 국가와 활발히 교류한 고려의 문화 유산과 생활 모습을 이해한다.</p> <p>① <u>고려의 성립</u> 과정을 <u>견훤, 궁예, 왕건</u> 등의 활동을 통해 파악한다.</p> <p>(3) <u>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u><br/><u>조선의 건국과 발전</u> 과정을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 시기에 유교적 질서가 정착되었음을 사회 및 생활상을 통해 파악한다. 특히 <u>세종</u> 대에 이루어진 <u>다양한 분야의 발전</u>을 인물과 그 업적을 중심으로 이해한다.</p> <p>① <u>조선의 건국</u> 과정을 <u>이성계, 정몽주, 정도전</u> 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p> <p>② <u>세종</u> 대에 이루어진 <u>대의 관계와 문화, 과학 분야</u>의 여러 성과를 탐구한다.</p> <p>④ <u>이순신과 남한산성</u> 등 <u>대표적인 인물과 유적</u>을 통해 <u>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극복</u> 과정을 조사한다.</p> <p>(4) <u>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u><br/>조선 후기에 전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려고 한 노력을 이해하고, 새롭게 소개되거나 발생한 문화와 학문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서민 문화의 모습과 <u>농민 분기 지도자의 이야기</u>를 통해 <u>농민의 성장</u>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p> <p>① <u>허균, 효종, 안용복</u> 등 인물 이야기를 통해 <u>전란의 어려움</u>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p> <p>② <u>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만덕</u>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p> | <p>◦ 5~6학년군 역사영역의 개관<br/>·인물 ⇔ 한국사의 역사와 문화 및 생활상의 변화 <u>파악</u><br/>·대표적 인물 ⇔ 삼국,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를 중심으로 <u>파악</u><br/>(1) 인물 이야기 ⇔ 고구려·백제·신라, 통일 신라와 발해의 역사와 문화 <u>파악</u><br/>② 단군의 건국 이야기 ⇔ 고조선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임을 <u>이해</u><br/>③ 인물 이야기 ⇔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과정 <u>파악</u><br/>④ 선덕여왕, 김춘추,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대조영 ⇔ 삼국의 통일 과정과 발해의 건국 <u>이해</u><br/>(2) 인물의 활동 ⇔ 고려 시기의 역사<br/>① 견훤, 궁예, 왕건 등의 활동 ⇔ 고려의 성립 과정 <u>파악</u><br/>(3)인물 이야기 ⇔ 조선의 건국과 발전 과정 <u>이해</u><br/>·인물과 그 업적 ⇔ 세종 대에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발전 <u>이해</u><br/>① 이성계, 정몽주, 정도전 ⇔ 조선의 건국 과정 <u>이해</u><br/>② 세종 ⇔ 대외 관계와 문화, 과학 분야의 여러 성과 <u>탐구</u><br/>④ 이순신 등 대표적인 인물 ⇔ 임진왜란의 극복 과정 <u>조사</u><br/>(4) 서민 문화의 모습과 농민 분기 지도자의 이야기 ⇔ 농민의 성장 <u>이해</u><br/>① 허균, 효종, 안용복 등 인물 이야기 ⇔ 전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 <u>이해</u><br/>②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p> |

|  |   |
|--|---|
| <p><u>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u><br/>         ③ 새로운 문물의 전래 모습을 알고 <u>정조의 화성 건설과 정약용의 업적</u>을 탐구한다.<br/>         ⑤ <u>홍경래 등 인물 이야기</u>를 중심으로 <u>농민의 성장과 저항</u>에 대해 이해한다.<br/>         (5)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br/>         개항 이후 해방 전까지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했던 노력과 <u>일제의 침략에 맞선 여러 방면의 민족 독립 운동을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파악한다.</u> 근대 문물의 수용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다.<br/>         ② <u>의병과 독립 협회 및 대한제국의 구국을 위한 노력을 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한다.</u><br/>         ③ <u>주요 인물 이야기</u>를 통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독립군의 전투 등 <u>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독립 운동</u>을 탐구한다.<br/>         (6)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br/>         ① <u>인물의 활동을 중심으로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u></p> | <p>만덕 등 인물이야기 ⇔ 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 <u>파악</u><br/>         ③ 정조 ⇔ 화성 건설 탐구, 정약용 ⇔ 업적 탐구<br/>         ⑤ 홍경래 등 인물이야기 ⇔ 농민의 성장과 저항에 대해 <u>이해</u><br/>         (5) 인물 ⇔ 일제의 침략에 맞선 여러 방면의 민족 독립 운동 <u>파악</u><br/>         ② 인물의 활동 ⇔ 의병과 독립 협회 및 대한제국의 구국을 위한 노력 <u>파악</u><br/>         ③ 주요 인물 이야기 ⇔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독립 운동 탐구<br/>         (6) 단원 개관에 인물 관련 미언급<br/>         ① 인물의 활동 ⇔ 광복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 <u>파악</u></p> |
|--|---|

2009개정 교육과정 역사영역에서의 특징은 ‘인물’을 활용하여 역사적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간혹, ‘조사’, ‘탐구’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대부분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만, 어떤 시점은 구체적 인물을 적시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시점은 이야기 형태로, 어떤 시점은 활동의 형태로 인물을 다루도록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차이에 의해 그 형태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인물을 통해 학습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이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한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고민에 터하여 교과서 구성에 대한 집필자들의 새로운 발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6학년군에서 두 학기 분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리·일반사회 영역과는 별도로 역사영역만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와는 달리, 교과서 개발은 초등 사회과 국경도서편찬위원회에서 5·6학년군의 전 영역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인물·일화 중심의 역사교육을 표방하며 역사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기술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 교과서나 수업에서 구현하는 것은 여러 이점이 제기되어 인물·일화 중심의 교과서 서술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구성 방식이 상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는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물을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상급 학교급에서의 역사교육과 어떤 관련성 안에서 초등학교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표 4 >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 내용 중 조선 후기의 교육과정 내용을 사례로 동시대간 성취기준을 비교하고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구성에 있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표 4 > 초·중학교 성취기준의 동시대간 비교 및 내용요소 간 계열성 분석

| 초등학교 5~6학년  | 중학교 1~3학년   |
|---|---|
| <p>(4)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br/>조선 후기에 <u>전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려고 한 노력을 이해하고</u>, 새롭게 소개되거나 발생한 문화와 학문이 <u>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u>. 서민 문화의 모습과 <u>농민 봉기 지도자의 이야기</u>를 통해 농민의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한다.</p> <p>① 허균, 효종, 안용복 등 인물 이야기를 통해 전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p> <p>②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김만덕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을 파악한다.</p> <p>③ 새로운 문물의 전래 모습을 알고 정조의 화성 건설과 정약용의 업적을 탐구한다.</p> <p>④ 풍속화와 민화 등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의 모습을 조사한다.</p> <p>⑤ 홍경래 등 인물 이야기를 중심으로 농민의 성장과 저항에 대해 이해한다.</p> | <p>(6) 조선 사회의 변동<br/>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양상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다룬다. 이 시기에는 사회 변동 속에서 <u>정치 운영의 변화, 문화의 변동이 있었음을 이해한다</u>.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학자들의 사회 개혁 방안이 제기되었으며, <u>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음을 설명한다</u>.</p> <p>① 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를 봉당 정치와 탕평 정치를 중심으로 이해한다.</p> <p>②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제기한 사회 개혁 방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학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파악한다.</p> <p>③ 조선 후기 문화 변동의 배경을 파악하고, 문화 변동의 양상을 문학과 그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p> <p>④ 세도 정치 시기의 농민 봉기가 지니는 의미를 대표적 사례를 통해서 파악한다.</p> |
| <p>* 초-(4)-①[전란 어려움 극복, 국토 지키기 노력 이해] ⇔ 중-(6) 내용요소에 미언급</p> <p>* 초-(4)-②[조선 시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상 파악] ⇔ 중-(6) 내용요소에 미언급</p> <p>* 초-(4)-③[새로운 문물의 전래 모습, 정조의 개혁 정치, 정약용의 실학적 업적] ⇔ 중-(6)-①[조선 후기 정치 운영의 변화], 중-(6)-②[실학의 성격과 의의, 사회 개혁 방안]</p> <p>* 초-(4)-④[서민 문화 모습 조사] ⇔ 중-(6)-③[조선 후기 문화 변동의 양상]</p> <p>* 초-(4)-⑤[농민의 성장과 저항 이해] ⇔ 중-(6)-④[농민 봉기가 지니는 의미 파악]</p>   |   |

현행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인물사와 생활사가 강조되어 실제로는 이러한 요소들이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중학교와 대동소이하게 다분히 정치사 중심 서술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교과서에 다가가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중학교 교과서와의 차별성을 찾기 힘들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과서 구성의 학교급별 차별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내용은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양상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시하면서 당시 정치적, 문화적 측면의 사회상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반면, 초등학교의 내용은 중학교의 사회 구조적 측면의 이해보다 인물, 일화를 중심으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이해하고 탐구하도록 하였다. 오히려 초등학교의 내용이 그 당시 사회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각 계 각종의 인물들을 통해 여러 방면의 생활상을 이해, 조사, 탐구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중학

교과 차별화된 내용요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위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초등 사회과 교과서 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인물사 구성 분석

#### 1. 2007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인물 구성 분석

분석한 교과서는 2007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서 중 역사영역과 관련 깊은 사회·사회과탐구(5학년), 사회과부도(4~6학년) 교과서이다. 최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기에 따라 현행 2007개정 교과서에서의 인물과 관련된 분석을 통해 교과서 서술 과정에서의 인물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으며, 차기 교과서에 등장할 인물 구성에도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시, 단원별 분석을 실시하여 시대별로 인물을 구성하는 방식의 특징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분석 방법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적시하고, 그 인물이 교과서 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하였다.

##### 1) 5학년 1학기 1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 분석

5학년 1학기 1단원 사회 교과서의 인물 구성은 < 표 5 ><sup>6)</sup>와 같이, 대체로 전형적인 정보 제공 및 자료 나열식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근초고왕, 광개토대왕·장수왕, 진흥왕의 전성기 시기 영토 확장 성과 및 김유신·김춘추의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한 설명식 기술과 관련 지도 및 유적·유물 사진, 인물의 초상화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구성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천편일률적으로 단순 사실의 열거, 그에 따른 참고 자료의 배치에 그친다는 점이다. 특히, 초상화의 경우, 인물과 관련한 학습에 초등학교생들에게 이미지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친근감을 줄 수 있으나, 특별히 인물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탐구를 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인물 혹은 그와 관련한 사건과 연관 지어 역사를 학습하는 데에 일정 역할을 갖지 못하여 지면 채우기 자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근·현대 이전 시대의 인물 초상화는 크게 사실성도 없을뿐더러 자료로서의 역할이 미비하다. 이에 초상화보다는 인물이 그 당시 사건 속에서 어떤 중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서술과 연계하여 인물을 부각시키는 당시 모습의 삽화로 구성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유물·유적의 사진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인물과 관련한 사건 혹은 행위와 연관짓는 자료로서 나타나도록 배치 및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 탐구 교과서의 인물 구성은 좀 더 활동에 비중을 둔 워크시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구성 방식은 인물이 포함된 사건을 서술하면서 그 속에서 인물의 행위와 사건을 연결하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행위 내용과 활동을 위한 발문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분리되어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등장한다. 28쪽의 경우, 수양제의 고구려 침략에 을지문덕의 기지로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이에 29쪽에 워크시트 활동을 위한 발문으로, 1> “살

6) \* 인물 구성 방식에 관한 분석 표에서 인물 앞에 제시한 ( )는 교과서 쪽수임. < 표 5 ~ 10 > 공통 적용.

수 대첩'과 '안시성 싸움'에 대해 조사해 보자'와 2> 적은 수의 고구려군이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던 까닭을 생각해 보자'를 제시하고 있다. 1번과 2번 모두 차시 내용을 모두 습득한 다음에, 답할 수 있는 활동이다. 사회 41쪽의 을지문덕 중심의 업적 설명, 사회과탐구 28쪽의 을지문덕에 대한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면, 두 발문 중 적어도 하나는 을지문덕과 그 당시 전쟁 상황을 연결할 수 있는 발문을 통해 을지문덕을 통해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 이루어져야 서술 내용과 활동 발문이 서로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차돈과 법흥왕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회 교과서의 설화 이야기와 사회과탐구 교과서의 만화를 통한 신라의 불교 수용 이해는 초등학교생들이 인물과 사건을 연관지어 이해하면서 그 당시 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구성이다.

< 표 5 > 5학년 1학기 1단원의 인물 구성 방식

| 사회 5-1   |                                | 사회과탐구 5-1             |   |
|--|--------------------------------|-----------------------|---|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 (6-7) 단군왕검, 근초고왕, 광개토태왕, 장수왕, 진흥왕, 문무왕, 대조영                          | 단원도입에서 연표 시기 제시, 초상화 제시(단군왕검)  | (7)단군왕검               | 초상화                                     |
| (20)단군왕검   | 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 (8)홍수아이               | 관련 유물 사진 제시, 관련 내용 설명(당시 시대 상황과 연계한 내용) |
| (21)단군왕검   | 단군, 왕검의 의미, 업적 설명              | (15)단군왕검, 환웅          | 신화 이야기에 주인공으로 서술                        |
| (21)일연   | 삼국유사 저자로서 언급                   | (16,17)단군왕검           | 업적 서술, 마인드맵으로 업적 정리                     |
| (21~22)환인, 환웅  | 단군신화의 인물로 등장                   | (18)주몽, 박혁거세, 김수로     | 건국이야기와 '알'에서 태어난 의미 서술, 그림, 정리 워크시트 제시  |
| (25)단군왕검   | 되짚어보기 정리                       | (20)광개토태왕, 장수왕, 진흥왕   | 업적 설명                                   |
| (26)근초고왕, 광개토태왕, 장수왕, 진흥왕  | 주제 도입 좌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 (22~23)법흥왕, 이차돈       | 이야기를 만화의 형태로 제시, 불교 수용에 대한 발문으로 워크시트 활동 |
| (27~28)주몽, 해모수, 하백, 유화, 금와왕, 손조, 유리, 비류, 박혁거세, 여섯손장, 김수로, 아물촌장, 다섯임금 | 건국 신화에 대한 설명에 인명 언급 및 업적 나열 설명 | (26)고국천왕              | 진대법 시행 시기로 언급                           |
| (29)근초고왕   | 업적 나열 설명                       | (27)주몽, 손조, 박혁거세, 김수로 | 주제정리에서 역사카드 놀이에 언급                      |
| (30)광개토태왕, 장수왕   | 업적 나열 설명, 관련 유적 제시             | (28)을지문덕, 수양제         | 인물 중심의 서술로 수와의 전쟁 묘사                    |
| (31)진흥왕  | 업적 나열 설명, 관련 유적 지도에 표기         | (30)김유신, 김춘추, 진덕여왕    | 업적 설명, 관련 표비 사진 제시                      |
| (32)법흥왕, 이차돈   | 신라불교 도입 과정 업적 설명               | (31)정효공주              | 관련 유적과 관련한 서술 언급                        |
| (33)이차돈, 법흥왕   | 순교비와 관련한 설화 제시                 | (34)장보고               | 초상화 제시, 일대기 및 업적 설명, 유적 및 역사경관 제시       |
| (36)성왕, 아리기, 왕인, 담징  | 일본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업적 설명            | (35)회치원               | 초상화 제시, 일대기 및 업적 설명 통해 당시 신분제 생활 이해     |
| (39)주몽, 손조, 박혁거세, 김수로, 근초고왕, 광개토태왕, 장수왕, 진흥왕                         | 주제 정리에서 인명 언급                  |                       |   |

|                                  |                              |                                    |                                    |
|----------------------------------|------------------------------|------------------------------------|------------------------------------|
| (41)을지문덕                         | 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 (38)정효공주                           | '정효공주 묘'의 유적 사진 제시                 |
| (42)김춘추(태종 무열왕)                  | 초상화 제시                       | (39)선덕여왕                           | 서술상 시기 언급                          |
| (42)계백                           | 역사적 사실 서술 중 인명 언급            | (40)광개토대왕, 진흥왕, 회치왕                | 단원정리 활동에서 인명 언급                    |
| (43)연개소문, 문무왕, 김유신               | 업적 서술, 유적 사진 제시 및 설명(문무왕)    | 사회과부도 4~6학년 교과서                    |                                    |
| (44)고연무, 건모삼, 안승, 복도침, 흑치상지, 대조영 | 부흥 운동 관련, 지도에 인명 언급, 업적 설명   | (62)주몽, 손조, 비류, 박혁거세, 설탈해, 김알지, 수로 | 삼국 성립의 실화 언급 및 성립 위치 제시 과정에서 인명 언급 |
| (45)대조영, 무왕                      | 업적 설명, 관련 장소(역사 경관) 사진 제시    | (62)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 영토확장 및 진출로 제시 과정에서 인명 언급           |
| (47)대조영                          | 주제 경리에서 업적 설명                | (63)흑치상지, 복신, 도침, 풍                | 백제 부흥운동 위치와 인명 제시                  |
| (50)원효                           | 업적 설명                        | (63)고연무, 검모삼, 안승                   | 고구려 부흥운동 위치와 인명 제시                 |
| (51)정덕대왕                         | 문화재이름으로 언급                   | (63)김유신, 김춘추                       | 초상화 제시, 인물의 무덤 사진 제시               |
| (52)정효공주, 문왕                     | 문화재이름으로 언급, 정효공주가 문왕의 딸임을 언급 |                                    |                                    |
| (53)원효, 정효공주                     | 원효(업적 설명), 정효공주(문화재이름으로 언급)  |                                    |                                    |
| (54)단군왕검, 근초고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진흥왕  | 단원정리에서 업적 설명                 |                                    |                                    |

2) 5학년 1학기 2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 분석

2단원의 인물 구성은 1단원과 달리, 지배 계층의 대표적 인물만 주류를 이루어 제시되기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 표 6 >과 같다. 정보 제시형의 구성이 주류를 이루는 한편, 손변의 재판 이야기, 평량양원지의 이야기가 담긴 사료 활용, 서희의 담판 장면의 대화체 서술, 처인성 전투의 상상화 구성과 함께 일화식 서술에 따른 인물의 행위와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성 방식이 공존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물의 행위가 역사적 사건 혹은 역사적 사회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구성상에 내용과 활동의 구현 가능성, 정합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나타난다. 사회 62쪽의 “후삼국의 성립과 통일 과정을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만화로 그려봅시다.”와 같은 경우, 초등학교생이 단시간에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의 큰 주제의 시간적 흐름을 내용을 압축시켜 표현하도록 하여 활동 구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사회과탐구 52~53쪽의 경우, ‘평량과 양원지’의 이야기를 통해 천민의 삶을 추측하고, 여러 인물의 입장이 되어 이야기 해보는 과정을 거쳐 신분제에 대처하는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신 정변 이후 신분상승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라는 발문은 무신정변 과정에서의 권력 투쟁 과정, 이 과정에서의 민생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궁핍한 생활 등까지 사회구조적 측면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변할 수 있다. 이는 ‘평량과 양원지’의 인물들 이야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발문으로 한정하여 이해한 것을 토대로 그 당시 신분 상승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행해졌는지 그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이 적절할 것이다.

< 표 6 > 5학년 1학기 2단원의 인물 구성 방식

| 사회 5-1                |   | 사회과탐구 5-1                          |   |
|-----------------------|---|------------------------------------|---|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 (56~57)서희, 강감찬, 윤관    | 단원 도입에서 연표 시기 제시                              | (44~45)왕건, 왕륜, 공예, 견훤, 왕경순, 왕, 신경  | 역사 인물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기(활동 워크시트)             |
| (60)견훤, 공예, 윤관        | 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업적 설명                   | (46)공예, 왕건, 견훤                     | 역사지도 연표에 언급(활동)                         |
| (62)견훤, 공예, 왕건        | 업적 설명, 후삼국 성립과정 인물과 관련된 역사 인물들을 인화로 만화 그리기 활동 | (48)태조 왕건, 최충로, 성종                 | 인물들이 만든 정책 조항 제시                        |
| (63)왕건, 견훤, 신경        | 업적 설명(왕건, 견훤), 인명 연표(신감)                      | (49)광종, 성종, 최충로                    | 업적 조사 위한 워크시트                           |
| (64)왕건                | 관련 유물 사진, 설명 제시                               | (51)여성, 손변                         | 족보와 재관 이야기 활용하여 사회상 추론하는 워크시트           |
| (65)견훤, 공예, 왕건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52~53)평량, 양원지                     | 이야기 활용하여 사회상 추론하는 워크시트                  |
| (66)윤관, 탄적            | 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업적 설명                   | (54)이규보, 윤여형                       | 교과서에 제시된 시의 저자로 언급                      |
| (66~67)(태조)왕건, 광종, 성종 | 업적 설명   | (56)태조왕건                           | 불교 장려에 대한 생각 소개                         |
| (69)손변                | 인물과 관련된 재관이야기를 내려티브식으로 서술                     | (58)김영환                            | 판관대장경 지키기 위한 사건 일화 소개하며 현대 인물 제시        |
| (72)망이·망소이, 최충현, 탄적   | 사건 이름에 인명으로 등장, 역사적 사건 및 사실 소개                | (59)판관대장경 완성에 참여한 3사람              | 인물에 대한 가상 인터뷰 방식으로 판관대장경 제작 과정 추론하기     |
| (73)왕건, 광종, 성종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64)김윤후, 배중손, 공민왕                  | 몽골에 대항한 역사 인물에게 편지 써 보는 워크시트 활동         |
| (80)서희, 윤관            | 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 (65)강감찬, 서희, 윤관                    | 주제 정리에서 업적에 대한 물음에 인명 쓰는 활동             |
| (82)서희                | 서희의 업적 설명, 답관 장에서 대화체 자료 제시                   | (69)문익점, 최무선                       | 업적 설명, 인물에 대하여 감사장 쓰는 활동                |
| (82)강감찬               | 지도 및 사건명에 언급                                  | <b>사회과부도 4~6학년 교과서</b>             |   |
| (83)강감찬               | 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 (64)왕건, 공예, 견훤                     | 후삼국 성립 시기 및 위치와 진격로를 나타내며 인명 제시         |
| (83)윤관                | 업적 설명, 인물 관련 사건 삽화의 제시 및 설명                   | (65)강감찬, 서희, 윤관                    | 거란, 여진과의 항쟁 과정과 위치, 진격로, 활약상 나타내며 인명 제시 |
| (84)배중손               | 사건 전개 서술상 인명 언급                               | (65)배중손, 김통경                       | 삼별초 이동경로 상에 인명 기입                       |
| (85)공민왕, 이성계          | 업적 설명   | (65)이성계, 이방실, 정세운, 최영, 최무선, 경지, 박위 | 홍건적과 왜구 침략 격퇴 활약상 나타내며 인명 제시            |
| (86)김윤후               | 치인성 전투의 활약상 설명, 상상화 제시                        | (65)서희, 윤관                         | 북방 민족과 고려와의 성장 나타내는 연표에 등장              |
| (87)서희, 강감찬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   |
| (88)윤관, 문익점, 최무선      | 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업적 설명                   |                                    |   |
| (90)구텐베르크             | 서술상 언급  |                                    |   |
| (91)문익점               | 업적 설명   |                                    |   |
| (92)최무선               | 초상화, 업적 설명, 관련 유물 사진 및 설명 제시                  |                                    |   |
| (92)세종                | 서술상 시기 언급                                     |                                    |   |
| (93)최무선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   |
| (94)서희, 강감찬, 윤관, 배중손  | 단원 정리에서 업적 설명                                 |                                    |   |
| (95)서희, 강감찬, 윤관       | 역사신문 읽기자료에 언급                                 |                                    |   |
| (95)견훤, 공예, 왕건        | 역사신문 기사에 업적 설명                                |                                    |   |

3) 5학년 1학기 3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 분석

3단원의 인물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전 단원과 같이, 정보 제시형 구성, 만화를 활용한 일화

소개와 더불어 사료를 활용하여 당시 인물들의 생각과 견해를 추론할 수 있는 구성, 역사 인물 조사하여 소개하거나 역사신문 만들기, 인물 간 대비되는 입장에 대한 역사적 의사결정 활동 구성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 표 7 >의 내용과 같다.

이 단원은 세종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여 많은 부분에서 구성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 제시형 구성에 있어 인물의 행위가 드러나는 상상화, 초상화, 관련 유물·유적, 서적의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 서적 내의 내용 중 일부를 세종의 업적과 연계지어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사회 108, 112쪽의 <훈민정음>이나 <경국대전>과 같이, 사회 107, 109쪽의 <삼강행실도>나 <농사직설>의 일부 내용을 사료로서 제시함으로써 사료에 등장하는 일반 백성들, 즉, 일반인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유교적 삶, 농업의 실태 등을 추론할 수 있게 제시한다면, 지금과 같이, 설명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적절한 구성일 것이다. 사회 119쪽의 '송순의 분재기', 120쪽의 '노비 추쇄 문건'의 경우, 기록물의 사진과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순'과 노비 인물을 등장시키며 직접 사료 내용의 일부를 제시하여 조선 전기 여성과 노비의 삶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시 사회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적합하다. 또한, 일반적인 설명식 서술로는 당시의 인물에 초등학생들이 다가가는 데에 무미건조한 측면이 많으므로 감정어입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상정하여 해당 시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내러티브적 서술로 당시의 사회상을 느끼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 표 7 > 5학년 1학기 3단원의 인물 및 인물 구성 방식

| 사회 5-1               |  | 사회과탐구 5-1                                  |                                    |
|----------------------|--|--|------------------------------------|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 (96)세종               | 단원 도입에 연표 시기 등장                        | (76)우왕, 최영, 이성계                            | 만화 통해 역사 인물의 일화 소개                 |
| (98)세종               | 단원 도입에 업적 설명                           |  |                                    |
| (100)세종              | 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명 언급                     | (77)이방원, 정몽주                               | 역사 인물과 관련한 사료 내용 서술, 관련 문화재 사진 제시  |
| (100)이성계             | 업적 설명                                  | (78)경도전                                    | 업적 설명                              |
| (101)이성계             | 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 (80-81)최영, 이성계, 정몽주, 이방원                   | 역사 인물의 말과 행동을 만화로 그리는 활동           |
| (102)이성계             | 업적 설명                                  |  |                                    |
| (103)경도전             | 업적 설명                                  | (82~83)최만리, 세종대왕                           | 사료를 인용하여 역사 인물의 생각 추론하기, 상소문 쓰는 활동 |
| (104)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 | 업적 설명                                  | (84)장영실                                    | 초상화 제시, 일대기 및 업적 설명, 관련 유물 사진 및 설명 |
| (105)이성계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87)세종                                     | 인물과 관련한 과학기술 및 문화재 소개하는 역사신문 만들기   |
| (106)태종, 세종, 성종      | 업적 설명, 세종(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명 언급, 상상화에 등장) | (90)윤장원, 홍문, 송노, 분개, 복지, 이광훈, 송주네, 남편, 아이들 | 내러티브적 서술로 일화 소개하며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추론 |
| (107)세종, 세종대왕        | 업적 설명, 상상화 제시                          | (91)김득신                                    | 관련 그림의 화가로 언급                      |
| (108)세종대왕            | 초상화, 업적 설명, 훈민정음 서문 제시                 | (92)정희왕후, 세조, 성종                           | 업적 설명                              |
| (109)세종대왕            | 관련 유물 사진 및 설명 제시, 업적 설명                | (100~101)이이, 도요토미히데요시, 황윤길, 김성일, 선조        | 일화 소개, 역사 인물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의사결정 활동  |
| (110)세종, 태종          | 서술상 시기 언급                              |  |                                    |

|                         |   |  |  |
|-------------------------|---|--|--|
| (111)성종                 | 업적 설명, 관련 서적 사진 및 삽화                            | (102)서산대사, 유성룡, 권율, 조준, 신립, 김시천, 이순신, 광개수림왕, 광개왕, 신라부                          | 역사지도에 인명 언급                                |
| (112)성종                 | 서술상 시기 언급                                       |  |  |
| (113)세종대왕, 성종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103)이상평, 심당길, 사야기(김홍선)  | 역사 인물의 일화 서술, 관련 문화재 제시                    |
| (119)송준                 | 분개기 사진 및 설명 제시 통해 당시 여성의 삶 표현                   | (104)봉림대군(호종), 소현세자, 이압, 살   | 역사 인물의 입장 차이에 대한 생각 정리하는 활동                |
| (120)노비                 | 노비의 삶을 추쇄 문건 사진과 함께 묘사                          | (105)원진왜란과 원란 관련 인물  | 두 사건과 관련한 역사 인물을 조사하고, 소개하는 글 쓰기 활동        |
| (128)세종                 | 연표에 언급  | 사회과부도 4~6학년 교과서  |  |
| (128)이순신, 인조            | 이순신(업적 설명), 인조(주제 도입 하단 연표에 인명 언급)              | (66)이성계, 태종, 세종, 최윤덕, 이천, 김홍서  | 조선 건국과정(위화도회군), 경로 및 4군6진 영토확장 과정에서의 인명 제시 |
| (130)이순신                | 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관련 유물모형 사진 제시                    |  |  |
| (131)광개우                | 업적 설명, 관련 동상 사진 제시                              | (67)유성룡, 권율, 신립, 경발/송상현, 이순신, 김시천, 경문부, 서산대사, 사명당, 조헌, 고경명, 김덕령, 김천일, 광개우, 성인의 | 왜란에 활약한 인물들의 인명 제시                         |
| (133)강홍립, 광해군, 인조       | 역사적 사실 서술상 인명 언급, 관련 유적(남한산성) 제시(인조)            |  |  |
| (134)인조, 소현세자, 봉림대군(호종) | 두 인물의 생각 비교하여 정리하는 활동, 상상화 제시(소현세자), 서술상 언급(인조) |  |  |
| (135)이순신, 호종            | 주제 정리에서 업적 설명                                   | (67)이순신  | 역사 인물의 활약 내용과 위치 제시                        |
| (136)태조, 이성계, 세종, 성종    | 단원 정리에서 업적 설명                                   | (67)인경연, 신경원, 홍명구, 이원, 김민영, 김홍용, 이상홍, 장만, 이필                                   | 호란에 활약한 인물들의 인명 제시                         |

4) 5학년 2학기 1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 분석

5학년 2학기 1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은 < 표 8 >과 같이, 1학기 교과서들과 유사하게 정보 제시형 구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풍속화를 비롯한 그림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생활상을 추론하는 구성, 인물들의 저작물을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탐구하는 구성, 부록 스티커를 활용한 인물과 사건 정보를 관련짓는 구성, 문학작품에 등장하거나 가상으로 상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자료제시형 구성이 특징적이다.

사회 12~13쪽에서는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치에 관하여 업적을 나열하고, 유적의 사진과 설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읽기자료로서 세금을 줄이려는 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영·정조가 주인공으로 하는 내러티브 구성을 통하여 세금을 왜 줄이려고 했는지, 왕 스스로의 문제의식과 고민, 백성들과의 대화 과정 등을 통하여 그 시대상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사회 22쪽의 허난설헌과 김만덕의 구성은 초상화와 생애에 대한 설명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 이들이 조선 후기 여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관련 사료의 제시와 내러티브적 서술이 함께 이루어져야 초등학교생들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인물 구성이 될 것이다.

사회 26쪽에서는 당시 소설 작품명을 소개하는 가운데,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명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회과탐구 19쪽에는 ‘홍길동전’의 일부분을 제시하여 당시 신분제 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도록 제시했으나, 발문이 “판소리, 탈놀이, 서민 문학이 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를 생각해보자.”라고 너무 포괄적 범위로 제시되어 ‘홍길동’이라는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가상 인물의 등장과 관련하여 신분제와 직접적 관련을 짓는 발문으로의 수정 방향이 필요하다.

사회 28쪽에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을 제시하며 두 그림의 성격을 설명식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 당시 모습과 그림을 비교하도록 하는 구성이 적절하다. 사회 34쪽의 '하멜 표류기'의 경우, 책자와 하멜의 표류 과정만 설명하고 있는데, 하멜이 조선에 대하여 이방인의 입장에서 서술한 부분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여 그 당시 모습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 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회 38, 41~43쪽에는 실학자들의 저작물명, 사진, 설명들이 제시되어 여러 실학자들의 생각과 주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성은 이들의 주장을 평면적 서술에 기대어 초등학교생들이 암기하게 하는 구성으로서, 그들의 생각이 들어간 사료의 일부를 제시한다거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등의 실제 저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실학자들의 내용 구성이 서로 파편화되게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들이 서로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적인 생각과 지향점을 가졌다는 점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 인물들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인물 간의 대화를 구성한다든지, 같이 청나라로 사신행렬에 참여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등 인물들 간의 관련성을 드러내어 실학의 내용을 좀 더 탐구할 수 있는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탐구 28쪽에는 정약용의 초상화, 업적, 관련 유적을 제시하며 <목민심서>의 일부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29쪽의 발문은 실학의 등장 이유, 실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내가 실학자라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등의 포괄적인 것만 제시하고 있다. 이 중 1~2개 발문은 28쪽의 서술과 정합성을 갖는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통해 실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 표 8 > 5학년 2학기 1단원의 인물 구성 방식

| 사회 5-1            |  | 사회과탐구 5-1                |   |
|-------------------|--|--------------------------|---|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 (6~7)이승훈, 홍경래     | 단원 도입 하단 연표에 인명 언급   | (7)정조                    | 초상화와 <보기>의 인명 제시하여 관련짓는 활동  |
| (10,32,38)영조, 정조  | 주제명 및 시기 구분으로 왕의 인명 언급, 업적 나열식 설명                                    | (9)정조                    | 관련 유적인 <탕평비> 사진과 함께 탕평책을 실시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는 워크시트 제시, 백성을 위해 한 일에 대한 나의 생각 쓰는 활동(왕의 행차 삽화, 백성들의 연로 개방 및 민원 처리와 관련한 설명 제시)   |
| (10)이승훈, 홍경래      | 주제 도입 좌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 (11)영조, 정조               | 주제정리 활동으로 탕평책, 백성 위한 노력, 왕권 강화 정책, 화성 건설 등의 업적과 관련한 조사 활동, '학습준비물 1'에 두 인물의 초상화, 탕평비, 거중기, 녹로, 수원 화성의 문화재 사진의 부록 스티커 제시 |
| (11)유성룡           | 저서의 사진과 내용 소개 과정 의성 <징비록>에 대한 저자로 인명 언급.                             | (14)박지원                  | <양반전>의 저자로서 언급, 만화로 양반전 내용 소개.  |
| (12-13)영조, 정조     | 인물 초상화 제시  | (15)선조, 숙종               | 당시 사회의 기록을 나타내는 실록명어로 언급, 당시 시기로 서 언급.  |
| (12-13)숙종, 영조, 정조 | 숙종(조선 후기 혼란기의 배경 설명 중 인물명 등장), 영조(업적 나열 및 관련 문화재 설명, 왕기차에서 세금 줄이려는 개 | (15)경주 백성, 박경신과 20여명 백성들 | 공명첩 기록 사료에 등장.  |
|                   |  | (16)여성                   |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을 생활용품 삽   |



|                           |   |   |  |
|---------------------------|---|---|--|
|                           | 역 소개를 설명식으로 제시함), 정조(업적 나열식 설명, 관련 문화재 사진 제시, 업적을 추가로 조사하는 활동 제시) | (17)김만덕   | 화와 함께 당시 인물의 말로 언급<br>'조선 후기에 전 재산을 풀어 굶주린 제주 백성을 구한 여성 상인'으로 규정한 단어 찾기 활동 |
| (14)정조                    | 화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 문화재 사진 제시에 한정된 서술                                   | (18)윤항, 심청, 홍부, 늘부, 이몽룡, 용왕, 토끼, 별주부, 조조, 유비, 손권    | 판소리 작품 제목 및 설명에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  |
| (15)영조, 정조                | 주제 정리에 업적 나열식 설명  | (19)홍길동   | 가상 인물 <홍길동>의 일부분 제시하여 당시 신분제의 사회상을 추론하도록 제시                                |
| (20)김홍도, 양반의 모습           | 풍속화 화가로 언급, 풍속화를 통해 당시 사회상 추측하는 서술                                | (23)바우엄마, 바우  | 가상의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풍속화(4장면)와 연계하여 추론하는 일기 써보는 활동                              |
| (21)여성                    | 조선 후기 여성의 삶을 설명과 삽화 통해 나열식 설명                                     | (26)최시형   | 인물이 직접 언급한 내용을 시를 통해 통학의 사상 추론하는 활동  |
| (22)허난설헌, 김만덕             | 인물 초상화 제시, 인물의 일대기를 간략히 설명  | (27)김대건   | 주제정리 활동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천주교 영세를 받은 사람'으로 십자말풀이 활동 중 언급                         |
| (23)여성들                   | 주제 정리에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 설명  | (28~29)정약용  | 초상화 및 관련 문화재 사진 제시, 업적 나열 설명, <목민심서>의 일부 내용 제시 등으로 실학에 대한 워프시트지 제시         |
| (26)홍길동, 윤항, 심청, 홍부, 장화홍련 | 당시 소설 작품명 소개하는 가운데, 가상의 인명 언급                                     | (30)김홍도   | 한 풍속화의 저자로 언급  |
| (28)김홍도, 신윤복              | 두 화가의 그림만을 제시하며 각 그림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                                  | (30)유형원, 이의, 정약용                                    |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 설명   |
| (34)하멜 표류기                | 하멜 표류과정 및 <하멜 표류기>에 대한 설명   | (30)유형원   | <반계수록>의 저자로 언급, 그 내용의 일부 제시하며 조선 후기 사회 모습 추측하는 활동                          |
| (35)정조, 이승훈, 윤지홍          | 정조(천주교 전래 시기로 언급), 이승훈(천주교 전래 과정에 언급), 윤지홍(처형되었다는 설명)             | (31)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 상공업 주장하는 실학자들의 주장 내용 설명  |
| (36)최제우, 최시형              | 임기자로 통해 최제우의 생각, 업적, 통학, 생애, 역사적 영향 설명                            | (31)박제가   | <북학의> 사료의 일부분 제시하여 인물의 생각 제시   |
| (38)정약용, 이익               | <목민심서>, <성호사설>의 저자로서 언급. 저서에 대한 소개로 인물의 생각 설명                     | (31)유형원, 박지원  | 두 실학자의 주장과 관련된 있는 사람을 대비시켜 조사하는 활동   |
| (41)유형원, 박지원              | <반계수록>, <열하일기>의 저자로서 언급. 저서에 대한 소개로 인물의 생각 설명                     | (32)홍경래, 유계훈, 이제열 등의 진주농민                           | 조선 말기 농민들의 어려움을 설명   |
| (42)유득공, 신경현, 유희의, 정약전    | <발해고>, <산정표>, <언문지>, <자신어보>의 저자로서 언급. 저서에 대한 소개로 인물의 생각 설명        | (33)김정호   | 주제정리로 '대동여지도' 만든 사람으로 규정하며 미로 찾기 게임에 제시                                    |
| (43)김정호                   | <대동여지도>의 제작자로서 언급. 지도 사진 및 소개글 중에 언급                              | (34~35)영조, 정조, 최제우                                  | 인물 초상화를 부록의 스티커로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1단원의 학습내용을 생각그들로 정리                         |
| (44)홍경래, 정조               | 홍경래(지도에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명에 인명 언급), 정조(시기로 제시)                       | <b>사회과 부도 4~6학년 교과서</b>                             |  |
| (45)실학자                   | 실학자들의 업적 설명   | (68)박제가, 김정호, 이익, 홍대용, 김경희, 정약용, 정약전, 유형원, 유수원, 박지원 | 실학자들의 저서 및 업적 제시   |
| (46)영조, 정조                | 단원 정리에서 업적 설명   | (68)이광경, 이수세, 이광, 김육, 소현세자, 아담살, 정두원, 리게스           | 서양 문물 전래자들로서 어떤 문물을 전래시켰는지 제시  |
|                           |   | (68)벨테브레이, 하멜                                       | 서양과 교류하는 인물들로 언급(시기, 경로)   |
|                           |   | (68)홍경래, 철종, 고종                                     | 민란 발생 시기와 위치 함께 제시함  |

5) 5학년 2학기 2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 분석

2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은 < 표 9 >와 같이, 개항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건 속에서 인물들의 활약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근대사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실제 인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이전의 초상화들과는 다른 사실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문 서술 가운데 인물사진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물사진 통해 주요 인물과 사건을 연관 짓고 조사하는 활동과 더불어 이를 활용해 연표를 만드는 활동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물 사진 외에도 그 인물이 활동하는 당시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진들도 비중 있게 자료로 구성하였다.

다른 기본적인 정보 제시형 구성, 개화에 대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인물들에 대한 의사결정 활동, 등장인물 카드를 활용한 역할극 활동, 인물에게 편지 쓰기 및 인터뷰하기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회 91~92쪽의 근대 문화계 인물들을 업적과 함께 나열식으로 구성한 것은 전형적인 역사적 사실의 나열 구성 방식으로 근대 문화계 인물들의 저서 내용의 일부들을 소개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당시 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의 구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탐구 66~67쪽의 부록을 활용한 인물-사건 딱지 연표 만들기 활동은 인물과 사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인물은 인물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연표에 붙이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기>로 제시된 인물과 사건이 서로 연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아 인물사와 사건사가 유리되어 단순 연대에 맞게 붙이게만 할 개연성이 높아 인물과 사건이 연계되는 <보기> 내용의 정선화가 필요하다.

< 표 9 > 5학년 2학기 2단원의 인물 구성 방식

| 사회 5-1                        |  | 사회과탐구 5-1                           |  |
|-------------------------------|--|-------------------------------------|--|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 (50~51)홍선대원군, 개화파 4인, 안창호, 김구 | 단원 도입에 인물 사진 제시                                      | (37)고종황제, 김홍도, 김홍도, 안창호, 안창호, 홍선대원군 | 인물사진 통해 주요 인물 살펴보고, 인물 찾아 색칠하는 활동, 외세힘잡기-일제강점기의 주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하는 활동 |
| (52)홍선대원군                     | 당시 시대에 대한 서술 중 인명 언급                                 | (38)홍선대원군                           | 추진 정책에 대한 설명   |
| (53)홍선대원군                     | 당시 시대에 대한 서술 중 인물의 생각 설명                             | (39)양헌수, 남영근, 오페르트                  | 서양과의 통상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에 언급된 인물과 관련 문화재 사진에 제시.                             |
| (54)홍선대원군                     | 인물의 업적 나열 설명   | (39)홍선대원군                           |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세 사건마다 개화 반대의 이유 작성하도록 워크시트지 제시                  |
| (55)양헌수, 어재업                  | 인물 초상화(양헌수) 제시,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사건 설명 가운데 언급 관련 유적 사진 제시 | (41)홍선대원군, 박규주                      | 주제 정리 활동으로 두 인물의 대화체로 각 입장 제시하여 개화에 대한 찬반 결정 및 의견 써 보는 활동                |
| (56)홍선대원군                     | 인물의 서양에 대한 견해와 관련 문화재 제시, 인물이 가진 견해에 대한 이유 추론하는 활동   | (43)전봉준                             | 인물의 일대기를 설명, 인물 관련 사진 포함하여 처형 과정 시를 제시, 인물을 떠올리게 하는 전대동요 제시.             |
| (60)고종                        | 관련 유적(환구단) 사진 제시 중                                   | (44)서재필                             | 독립신문과 독립협회와 관련한 업적 설명.   |
|                               |  | (45)고종                              | 대한제국 황제 등극과 근대문물   |

|                         |  |   |  |
|-------------------------|--|---|--|
|                         | 언급   |   | 수용에 관한 업적 설명, 관련 문화재(환구단) 사진 제시                                    |
| (62)김속균, 개화파            | 인물(김속균) 초상화 제시, 개화파들의 주장 알아보는 활동                             | (46~47)신식·구식 두 인, 개화 반대자  | 학습준비활동 3의 등장인물 카드를 이용하여 역할극 만들기 활동하기 (주제부미기→동창인물카드 이용 만들기→할극 발표하기) |
| (63)동학농민군               | 봉기에 대한 상상화 제시  | 동학농민군 지도자 방관리   |  |
| (64)김홍집                 | 인물 사진 제시   | (48)승려 이동인  | 석유, 석유램프, 성냥을 도입 과정 설명, 등장 언급                                      |
| (65)명성황후, 고종, 서재필       | 인물 관련 유적(건청궁) 제시, 업적 소개 과정에서의 인명 언급, 업적(서재필) 나열 설명           | (49)김기수   | 기차 소개한 인물로 설명  |
| (66)고종 황제               | 인물 사진 제시, 즉위식 사진 제시, 업적 나열 설명                                | (57)일제강점기   | 여러 사람의 처지가 되어 일기 써 보는 워크시트 활동                                      |
| (75)최현배, 이위중, 민영환       | 최현배(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이위중(사진과 함께 소개), 민영환(초상화 제시, 관련 유적 제시)하   | (58)안중근, 안창호  | 역사신문 양식에 인물과 관련한 사건 보도 형식 및 인터뷰 방식의 설명                             |
| (52,64,74,84) 안중근, 윤봉길  | 주제 도입 과단 연표에 인물명 언급  | (60)유관순   | 인물 사진 제시, 인물의 일대기 역사 인물에 대한 탐사 소개를 제시하는 활동                         |
| (85)신돌석, 안중근            | 신돌석(동상 제시, 업적 설명), 안중근(사진 제시, 업적 설명)                         | (62)홍범도, 김좌진  | 홍범도의 동상, 청산리 대첩의 민족기특화 제시하며 인물 중심의 서술로 사건 소개                       |
| (86)윤봉길, 김대건            | 윤봉길(시기 구분으로 언급), 안중근(업적 설명), 김대건(지도 제작자로 언급)                 | (63)안창호, 서상진, 안중근, 김좌진, 김대건   | 인물의 생애와 활동 업적을 찾아와 발표할 것을 내기, 그 인물에 대해 찾아 발표                       |
| (87)이승훈, 안창호            | 초상화 제시, 업적 나열식 설명  | (66~67)고종 황제, 김구, 김좌진, 신채호, 안중근, 안창호, 신채호, 안중근, 안창호, 안중근, 안창호, 안중근, 안창호 | 인물 사건의 불입까지 활용한 사건·인물의 연표 만들기 활동                                   |
| (87)안중근, 안창호            | 나라 되찾기 위한 노력 알아보는 활동   |   |  |
| (88)유관순                 | 유관순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 <b>사회과</b> 부도 4-6학년 교과서   |  |
| (89)홍범도, 김좌진            | 인물 업적 설명, 초상화(김좌진) 제시  | (70)전봉준   | 동학농민운동 지도 밑에 전통문 사진 제시   |
| (90)이봉창, 윤봉길, 김구        | 세 인물의 초상화 제시, 인물 중심으로 독립운동 과정 자세히 설명, 인물의 저서 내용 중 일부분 인용(김구) | (70)홍범도, 이소룡, 이상년, 민인성, 조진, 노영우, 안중근, 안창호, 최현배                          | 의평활동 지역과 함께 인명 언급  |
| (91)이윤재, 최현배            | 조선어 학회 관련 업적 설명  | (71)홍난파, 이광수, 나운규, 박은진, 신채호, 최현배, 수, 이광수, 한용운                           | 민족문화수호운동 관련 인물 정보 제시   |
| (92)신채호(을지분덕, 이순신), 손기정 | 초상화 제시, 업적 설명. (을지분덕, 이순신, 신채호의 영웅전투인공으로 소개)                 |   |  |
| (92)심훈                  | 업적 설명, 저작시의 일부 제시  |   |  |
| (92)박은식, 한용운, 윤봉길, 나운규  | 업적 나열식 설명  | (72)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안창호  | 해의 독립운동 사건과 위치를 인명과 함께 언급  |
| (93)윤봉길                 | 단순 인물 언급   |   |  |
| (94)홍선대원군               | 단원 정리에서 인물 업적 설명   |   |  |

6) 5학년 2학기 3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 분석

3단원 교과서의 인물 구성은 < 표 10 >과 같이, 다양한 인물 구성보다는 대부분 대통령 중심의 인물들에 집중되어 구성하고 있으며, 현대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 혹은 '가족'과 공감할 수 있는 '초등학생', '민주제 가족' 등의 인물이 특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물의 중요한 사건과 연관지어지는 사진자료들이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어 살아있는 역사로서의 자료가 충분히 활

용되고 있다.

이 단원은 현대사 인물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인물 구성 방식도 직접적인 인물에 대한 서술보다는 사건 속에 인물이 등장하지 않게 서술하거나 등장하는 사진 속에서의 인물 등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19혁명과 외환위기 시절, 현대사 전체 사건 꾸미기 활동 등은 내가 직접 그 입장이 되었을 때의 생각을 떠올리게 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나 스스로 생애를 거꾸로 생각해보는 입장에서 인물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사회 121쪽의 ‘외환 위기 당시 한 초등학생의 일기’는 아동의 일기를 통하여 그 아동의 처지와 생각 등을 통해 당시 외환위기의 모습을 알 수 있어 아동을 주인공으로 한 특정 인물이 아닌 일상인들의 시대적 어려움을 느끼게 해 주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실제 아동을 주인공으로 한 사건기사나 그 속에 담긴 인터뷰, 이야기 등이 제시되었으면, 좀 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 108쪽의 학도병 박명근의 일기를 통한 전쟁의 모습을 추론하게 하는 구성은 고대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와는 다른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초등학생들이 갖도록 하고 있다.

< 표 10 > 5학년 2학기 3단원의 인물 구성 방식

| 사회 5-1                           |  | 사회과탐구 5-1                                       |  |
|----------------------------------|--|---|--|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인물  | 인물 구성 방식                                 |
| (103)김구, 이승만                     | 두 인물을 사진과 함께 대비되는 활약 서술.                         | (69)김대중, 김정일                                    | 남북정상회담과 연결된 인물 사진 제시                     |
| (104)이승만, 김일성                    | 남북 양측 정부 수립의 수반으로 언급                             | (72~73)이승만, 김구                                  | 두 인물의 정부 수립에 대한 견해 제시하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
| (108)학도병 박명근                     | 전쟁에 참여했던 당시 인물의 일기, 사진 통해 생활상 제시                 | (79)이승만   | 발체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에서 이승만의 행위 설명               |
| (111)진영숙                         | 4·19 혁명 참여 학생의 편지글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추론              | (80)이승만   | 4·19 혁명에 관한 사진 및 설명 중 등장                 |
| (112)이승만                         | 4·19 혁명 설명과정에서 인명 언급                             | (81)초등학생들, 임동성(초등학생)                            | 4·19 혁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을 사진 및 시조로 묘사  |
| (113)민주네 가족                      | 소설 <한강>에 등장한 민주네 가족 모습 통해 당시 풍경 상상               | (82)전두환   |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설명 중 언급                    |
| (114)박정희                         | 1960~70년대 인물의 행위 설명                              | (83)노태우   | 신문 사료에 언급                                |
| (115)박정희, 전두환                    | 1970~80년대 인물의 행위 설명                              | (90)김영삼, 김대중                                    | 평화로운 정권 교체 실현의 인물로 사진 제시                 |
| (116)전두환, 노태우, 이한열               | 전두환, 노태우(인물의 행위 설명), 이한열(6월 민주 항쟁 사진 제시하며 인명 언급) | (91)김일성, 김정일                                    | 북한 소학교의 학습내용으로 다루지고 있는 인물로서 언급           |
| (117)이승만                         | 대통령 선출 사진 제시                                     | (93)박정희   | 10대 뉴스 선정 염표 만들기 활동에서 <보기>로 제시           |
| (119)박정희                         | 인물의 활약 사진 제시                                     | (94)나   | 현대사의 주인공을 나로 삼아 시대별 사건을 이야기로 꾸며보는 활동     |
| (121)초등학생                        | 당시 사회상을 아동의 눈을 통해 제시                             | 사회과부도 4~6학년 교과서                                 |  |
| (122)독일 파견 광부 및 간호사들, 중동 건설 노동자들 | 인물들의 사진 제시 및 활약상 설명                              | (72)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인명 및 재임기간 제시                 |
| (123)이승만, 박정희                    | 주제 정리에서 단순 인물 언급.                                |   |  |
| (126)사마란치                        | 서울올림픽 유치 과정 설명 중에 단순 인물 언급.                      |   |  |
| (127)북한 어린이                      | 어린이의 생활 속에서 북한 사회상 파악                            |   |  |
| (132)이승만                         | 단원 정리에서 인명 언급                                    |   |  |

7) 사회과부도의 역사 인물 구성 분석

2007개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자료 구성에 있어 5학년 역사영역에 역사 지도와 관련한 자료집의 형태로 사회과부도가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사회과부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5학년 사회·사회과탐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지도를 통해 역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물과 관련된 지도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제공에서 더 나아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여러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 표 5 ~ 표 10 >에서 각 단원별로 분석한 사회과부도 결과에 비추어볼 때, 62쪽 건국 선회에서의 석탈해, 김알지, 65쪽 고려말 흥건적과 왜구 침입에서의 이방실, 정세운, 정지, 박위, 66쪽 4군6진 개혁에서의 최윤덕, 이천, 67쪽의 임진왜란에서의 김덕령, 성안외, 정발, 송상현, 신경원, 홍명구, 이완, 민영, 김준용, 김상용, 장만, 68쪽의 서양문물 전래에서의 이광정, 이수광, 김육, 정두원, 리게스, 70쪽의 의병운동에서의 이소용, 이강년, 민공호, 유인석, 노용규, 안규홍, 임병찬, 71쪽의 일제강점기 문화인물 및 독립운동가 관련, 홍난파, 이중섭, 최남수, 이광수, 강우유, 나상욱, 나석주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인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학습량의 증가와 내용 이해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한편, 사회과부도 87~90쪽의 인물들은 우리나라 역사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표를 제시하는 가운데 등장한 인명들이다. 초등학교생들이 사회과 역사영역을 학습하면서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반만년 역사의 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자료제시 형태이다. 다만, < 표 11 >에 밑줄 친 인물들과 같이, < 표 5 ~ 표 10 >의 사회·사회과탐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아무 선정 기준없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발견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해야 할 많은 인물·사건들에 대하여 종합하여 하나의 연표로 제시하기보다는 중·고교에서 활용되는 정치사 중심의 연표를 차용하여 사회과부도에 수록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인물과 사건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제외된 것이 더 많았으며, 그보다 문제시되는 것은 초등 사회과교육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물·사건들이 여과없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3·4학년 교과서 개발 시기에 사회과부도를 편찬하여 5·6학년 교과서 개발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 7차 교육과정기의 사회과부도(2002)와 비교해보았을 때, 역사지도 및 국사연표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도 이전의 내용 구성을 그대로 답습하여 사용한 것도 큰 요인이다. 사회 교과서 개발 내용과 사회과부도 개발 내용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구성 방안이 요청된다.

< 표 11 > 사회과부도의 인물 구성 방식

| 사회과부도(4~6학년) 교과서    |   |   |                 |
|---------------------|---|---|-----------------|
| 인물                  | 인물구성방식  | 인물  | 인물구성방식          |
| (84~86)역대 왕명        | 역대 왕조 제보 방식으로 제시  | (87~90)위안, 고이왕, 장보고, 견훤, 궁예, 왕건, 강조, 의천, 윤관, 이자겸, 묘청, 김부식, 정몽주, 최충현, 안축, 안향, 문익점, 최영, 최부선, 박위, 태조, 세종, 인조, 이괄, 벨테브레이, 정두원, 소현세자, 허멜, 한홍복, 이승훈, 홍경래, 최제우, 김정호, 지석영, 유길준, 고종, 안중근, 나철, 박종빈, 김화진, 이봉창, 손기정, 장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일성,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 전 시대에 걸쳐 나타난 인명 |
| (93)진홍왕, 왕, 무령왕, 중종 | 문화재 제작시기로 인명 언급   |   |                 |
| (115~119)역사 등장인물    | "지명·용어찾기(역사분야)" 메뉴의 색인을 통해 역사 인물 및 관련 지도·문화재·사건 찾기 용이함. |   |                 |

전체적으로 2007개정 사회교과서에서의 인물은 서술 과정에서의 단순 나열식 인물명 언급, 역사 연표 및 지도에서의 인물명 언급, 인물 초상화의 제시, 인물과 관련된 유적, 유물(저서 포함) 등의 설명과정에서의 언급 과정에서 주변부의 역할로 등장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관련 인물의 업적 나열 및 생애,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서술상의 인물 활용 등의 방식으로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물 제시 방식은 정보제공에 중점을 주고 있는 방식으로서, 본문에서의 서술 과정 및 읽기자료에서 많은 부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 제시 방식은 역사 서술의 건조함이 부각되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기에는 한계가 나타난다. 내러티브를 통하여 인물 중심 서술을 통해 그 시대상을 드러내도록 함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활동으로 알 수 있는 역사 서술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단순 나열식의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당시 시대와 연관되는 인물의 삶, 그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사회상이 서로 연동되는 서술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인물에 다가가려는 노력도 많은 부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 큰 주제, 너무 큰 시대상들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두어 초등학생들에게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이 제시되었다. 단계적으로 인물로 제시한 서술이라면, 인물과 관련한 발문 및 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에 기초한 사건, 사회상, 시대상으로의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내용과 활동이 정합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단순 인물의 업적, 유물, 유적, 사진(인물화)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서사적 구조와 유물, 유적, 사료의 구체적 내용을 드러내어 이를 통해 당시 생활 및 사회상을 추론할 수 있는 정선화된 메시지를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역사 속으로 진정한 탐구의 과정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외국 교과서에서의 인물 구성 분석**

**1) 일본 교과서의 구성**

교과서의 참고 자료로서, ‘인물로 배우는 일본 역사’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これでわかる 歴史人物 小学 4~6年>는 인물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초등 사회과 역사교재로서 그 구성 방식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교재 특징 및 구성 방법을 살펴보면, < 표 13 >과 같다.

< 표 13 > 일본 인물사 교재의 특징 및 구성 방법

| ■ 특징   | ■ 구성 방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상 주요 인물을 제시하였다.</li> <li>· 초등 역사학습에서는 국가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업적에 대해 흥미, 관심, 이해를 깊이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 책에서는 학습지도요령에 나오는 히미코~노구치히데요시까지의 42명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원 도입과 연표 : 그 장의 주요한 사건을 연표로 나타내고 있음과 동시에 그 시대의 특징을 일본의 역사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 단원에 나오는 인물이 어느 시대에 등장하며, 어떻게 역사를 발전시켰는지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li> <li>· 본문과 ‘이것이 포인트’ :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상에서 주요한 인물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를 지지</li> </ul> |

|  |  |
|--|--|
| <p>포함한 일본 역사를 움직인 중요 인물 100명을 다루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민, 마을사람, 국민 등 역사의 발전을 지지해 온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li> <li>· 향토의 위인을 위한 별도의 구성을 하였다. '향토 발전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장(章)을 통해 지역 역사 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li> <li>·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물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는 에피소드나 칼라 사진을 많이 올려놓았다.</li> </ul> | <p>해 온 일반 사람들의 삶도 접하고 있다. 게다가 향토를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한 명의 인물을 별로 한 개의 항목으로 한 페이지씩 정리해 놓아 자유롭게 어디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가 포인트' : 인물에 대해서 더 중요한 포인트나 키워드가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li> <li>- '더 자세하게', '더 알려줘' : 어려운 용어나 이해를 깊게 하며,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지식 등을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li> <li>- '관련 인물' : 그 인물과의 관계 깊은 인물에 대해서도 해설하고 있다.</li> </ul> <p>· 문제 및 체크리스트 : 문제가 실려 있어 지식이나 이해력을 굳힐 수 있다. 그 단원에서 학습한 것을 잘 알고 있나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본문으로 돌아가 복습하도록 하고 있다.</p> |
|--|--|

단원 도입과 연표에서 주요한 특징은 해당 단원의 특징을 역사 속 흐름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시대의 인물 연표와 시대 연표, 사건 연표를 한 연표에 함께 제시함으로써 다루고자 하는 시대의 시기, 사건, 인물을 서로 관련짓도록 구성하여 제시되고 있는 인물이 어느 시기 및 시대와 서로 관련지을 수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연표에 제시한 인물과 그 단원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일치하도록 제시함으로써 단원 도입과 본문의 학습 연계가 가능한 인물사가 구성되도록 하였다.

본문의 내용 조직은 일본 역사에서 중요하다고 선정된 인물들을 시대별로 조직한 중요 단원들 속에서 연대순으로 인물 한 명, 한 명을 한 주제로 삼아 교재를 구성하였다. 중간 중간에 '메이지유신과 사람들의 삶', '전쟁 중 사람들의 삶',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등의 영웅, 위인 중심의 인물사를 보완하는 형태로서 해당 시대 혹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속에서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하는 구성을 제시하였다.

## 2) 미국 교과서의 구성

분석한 미국 역사 교과서는 Macmillan/MacGraw-Hill 출판사의 초등 5학년 <Our Nation>이다. '올바른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미국 사회과 목표 실현을 위해 역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물학습은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본 교과서에서는 인물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BIOGRAPHY'라는 활동 코너에서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식, 둘째, 교과서 본문 내용 속에서 다루어지는 형식이다. 모든 단원에서 당시 주요 인물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었고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인물을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역사 교과서에서 선정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 관점, 성별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 역사 속 인물들의 다양한 활동 모습을 성별의 차별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흑인, 인디언 등의 인물을 통해 미국 역사를 만든 소수 민족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본문에서 미국 발전의 업적을 위한 탐험가나 정치가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Harriet Tubman 등과 같이 소수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미국 역사의 승리한 백인 남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폭력 앞에 당당히 맞선 인디언, 흑인, 여성 인물을 통해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기르고 다양한 관점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교과서의 구성 및 서술 방식은 '민주 시민성 함양'이라는 사회과 목표에 충실하게 구성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첫째, 'BIOGRAPHY'에서 인물 설명 후, 'Link to Today'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인물과 유사한 삶을 산 현대의 인물을 찾고 비교/대조하고 있다. 이는 역사 속 인물의 삶, 가치, 업적 등을 파악하고 현대의 인물과 관련지어봄으로써 그 인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저 과거 속에 묻힌 역사가 아니라 현대와의 관련성을 찾아 유의미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민주 시민성 함양'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보인다. 둘째,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대조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콜럼버스에 대한 토론 활동이 두드러진다.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의 행적 및 결과를 되돌아봄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사고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가치에 비추어 역사 속 사건을 평가함으로써 현대를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가치판단을 하고 이를 직접 적용해나갈 수 있는 활동이 되고 있다.

미국 역사 교과서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중요 인물을 자세히 제시한 'BIOGRAPHY'는 가장 특징적인 인물사 구성으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분야, 인종, 성별의 인물이 제시되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역사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 운동가,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 정치가 등 미국 역사를 만들어 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승자만의 역사가 아닌, 미국을 구성하는 모든 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재의 가치에서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역사교육을 실현시킨다.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만 머물러,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는 역사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역사 교과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현대와 과거의 대화를 시도하게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 3) 프랑스 교과서의 구성

분석한 프랑스 교과서는 HACHETTE 출판사의 5, 6학년<sup>7)</sup> <Histoire/Géographie><sup>8)</sup>이다. 프랑

7) 프랑스는 12학년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이 프랑스에서는 12학년이다. 11학년은 우리나라의 초등 2학년, 10학년은 초등 3학년이다. 따라서 6학년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 5학년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스 교과서에서는 인물사가 중심이 되는 주제명에 인물의 이름과 중심 업적이 함께 제시된다. 인물과 관련된 주요 역사적 흐름을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고, 인물의 개인적인 생애(출생, 어린 시절 등)는 제시되지 않거나 1~2줄 정도만 쓰여 있다. 주요 업적 및 역사적 사건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사료를 통해 인물의 행위와 생각 등이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승전결이 있는 내러티브 형식의 구성으로서, 시간의 흐름, 인과관계에 따라 인물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난다.

자료 제시 방식은 6학년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의 가장 앞부분에서 인물 연표를 별도로 제시한다. 본문에서 다루는 선사 시대~로마 멸망 시기까지의 역사를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연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림, 삽화, 편지, 역사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 제시된 대부분의 글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사료이다. 글상자 안에 담긴 글들이 모두 역사서에서 발췌한 사료들이다. 클로비스1세의 세례 과정, 샤를마뉴의 생김새 묘사, 잔 다르크가 영국과 부르고뉴의 왕에게 보낸 편지 등 당시 역사적 상황 및 인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사료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림 사료의 경우, 인물의 행위 모습이 담겨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여 그 인물의 업적,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역사적 사건과 어떤 관련 속에서 살아간 인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사료들(그림, 역사서 발췌 내용 등)과 함께 그 안에서 답을 찾거나, 또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한다. 사료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그에 관련된 질문은 반드시 제시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6, 5학년의 교과서 분석 결과, 구성 형식에 있어 학습자의 역사적 탐구력 및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물의 역할이 중대한 경우 대담하게 인물을 중심으로 내세워 해당 단원 및 주제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역사의 모습을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별도의 부록 혹은 읽기자료 형식의 인물사 구성이 아닌, 교과서 본문에서 역사와 함께 존재했던 인물을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인물의 개인적인 생애보다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인물의 주요 활동 모습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학습자는 인물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의 행동을 보며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파악한다. 인물의 주요 활동 모습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의미 있는 역사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인물의 모습이 담긴 그림 사료의 경우, 초상화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적 맥락이 함께 담긴 기록화를 제시하여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단순히 인물의 생김새를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자료로서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자료를 통해 당시 생활상을 파악하고, 인물과 역사적 상황과의 긴밀한 관계를 파악하여 역사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료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역사 교과서는 사료 제시에 있어 진지한 속고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해당하므로, 학습자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먼저 밝히고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8) 역사(Histoire)와 지리(Géographie)가 하나의 교과서로 구성된 <Histoire/Géographie> 교과서이다.

#### IV.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인물사 구성 방안

인물사 구성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본문 서술 과정에 인물을 삽입시켜 구성하는 방식과 교재내용에 따른 인물들을 선정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단원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인물사에 대한 구조적 구성 방식 중에서 현행 교과서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차기 교과서의 구성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교과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물사 구성에 대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구성 체계는 연대기와 주제 구성 방식이 혼용된 체계로서 해당 단원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사건을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자연스레 해당 사건을 끌고 가는 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인물 선정에 있어 어떤 사건을 선정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이와 관련한 역사 내용의 구성으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의 소개, 이와 관련된 인물의 행위가 함께 제시되고 그와 관련한 당시의 자료들, 현재 가공한 자료들이 혼용되어 제시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 등장할 개연성이 높고, 그와 관련한 서로 다른 입장 혹은 의견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필연적으로 등장에 따른 서로 다른 행위나 행동이 등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건 전개에 따라 갈등 혹은 협력 등의 역사적 사실 혹은 이야기 전개가 제시될 것이다. 그 이외에도 인물사 구성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전개 방식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역사의 주체인 '인간'이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인물사 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점에 따라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물사 구성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 인물의 업적에 관하여 나열식 서술을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한글 창제, 백성들에게 유용한 각종 서적 편찬, 과학기술 발전, 국방 강화, 농업 장려, 음악 자료의 체계화 등에 관한 업적들을 자세히 평면적으로 서술하는 데에 그친다면, 학습자들이 그 인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그 결과는 자명하다. 그냥 단순히 조선 시대에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었다는 생각으로 흘려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 인물의 업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

단순한 업적 서술에서 벗어나, 역사 주인공이 1인칭 화자가 되어 자신이 행해왔던 바를 자전적으로 기술하는 일기 형식의 내러티브 형식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학습자들이 활용하여 충분히 그 인물이 한 일에 몰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도 역사 인물 주변의 다른 인물들이 바라보는 내용의 서술, 현재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서술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인물에 대한 서술 방식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인물의 초상화 및 동상 자료의 구성은 본문 내용 구성과 유리되지 않게 한다. 단순히 등장인물의 초상화 및 동상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 인물의 이미지를 학습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인물의 모습을 통해 무언가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 인물 개인의 인격 혹은 역사적 대표성 등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초상화, 동상의 모습을 통한 역사 인물의 교과서에서의 형상화는 특별한 목적이나

학습자에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은 교과서에 제시할 관련 역사 자료의 빈약함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초상화나 동상의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제시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에 역사적 인물이 사건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지화하여 제시하는 것도 적절한 구성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물과 관련된 읽기자료 제시의 방법적 구성을 취해야 한다. 이야기식의 읽기자료들도 단순한 자료 제시에 그친다면, 의미없는 지면 구성이 된다. 읽기 자료를 통해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과정을 거쳐 역사 탐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인물에 대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든지, 그 인물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함께 제시하든지의 여러 학습 방법적 측면의 구성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역사 인물 조사를 위한 학습 방법의 안내를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역사 인물에 대하여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인물 조사를 비롯하여 학습 방법에 대하여 예시 사례를 제시하여 초등학교생들이 학습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수행한 다양한 조사 사례들과 수행 과정을 교과서에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는 것도 역사 인물 조사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교과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과서 사례 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의 관점을 교과서에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쟁점에 따라 역사적 사실 진술에 따른 평면적 서술이 적절한 것인지, 해당 쟁점에 대한 학습자 나름의 생각과 판단이 드러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서술이 적절한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터하여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한 중점사항들이 드러날 수 있게 상황에 대한 의견 표출이나 행위의 묘사 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여섯째, 그 시대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거나 뛰어난 업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도 등장하기도 하지만, 특정 인물이 아닌 그 시대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상인물을 제시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과 생활 모습 등을 상상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조선 국왕들의 하루 일과 혹은 생활 모습 등을 추론하게 하는 삽화 혹은 일반 농·어민, 상공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일반 민중들의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시기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했다는 식의 구성은 초등학교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일곱째,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는 문화재, 그림을 활용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추론하도록 구성한다.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유적·유물의 사진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유적·유물이 역사 인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구성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역사 인물과 관련된 유적·유물이 그 당시 인물의 생각 혹은 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서술이나 삽화(상상화) 등을 통해 관련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자료 및 사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그 서술이나 삽화와 연

관지어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덟째, 인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결론적 모습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소재(사례, 사실 등)를 통해 인식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다. 이는 활동 중심, 탐구 중심, 소재 중심의 교과서 구성으로서 사진, 삽화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단원별 내용 전개 방식을 이야기, 견학 기록문, 일기체 등의 다양화 서술 기법을 활용할 여지를 마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약용을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는 정약용이 화성을 건설하는 데에 일조하고,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업적을 기술하는 것보다는 다산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이버 다산 박물관에 접속하여 이에 대한 견학 기록문을 작성한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 등을 통해 인물에 대한 탐구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표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로, 어린이들의 등장도 주요한 방법이다. 2007개정 교과서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 줄 수 있다. 초등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화자를 통해 그 인물에게 다가갈 수 있고, 다양한 생활 사태에서 초등학생 스스로 인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만, 현대사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므로 현대 이전의 시대에도 실제 어린이, 혹은 가상의 인물로 반영하여 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교과서의 구성과 관련, 인물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 서술은 기본적으로 연대순으로 하는 하되, 주제에 따라 교과서에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또한, 인물의 사건 속의 조망을 위하여 본문 내용에 들어있는 사건의 연표를 주제 도입 단계 혹은 본문의 상·하단에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내용구성 방식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하기보다는 사료, 문헌, 상반된 상황을 제시 후, 토의, 질의-응답, 역사신문, 역할극 등 적절한 학습형태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내용 중 인터뷰나 일기 형식 등을 차용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에 왜곡된 사실이 첨가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인물보다는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인물이 차용되어 의미 없이 활동 결과 및 업적이 나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회과탐구에서는 인물과 관련한 보충자료와 함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과 활동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형태로 워크시트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인물과 사건을 관련짓고, 인물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인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요청된다.

## V. 結: 생생하게 역사에 다가가는 초등 사회과 교과서를 꿈꾸며...

초등 사회과 역사 수업이 학습자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 지식 주입, 듣고 외우며 쓰는 단조로운 활동 반복의 수업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끌지 못하고 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수업에 있어서 교

과서는 단순 학습 도구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구체적 표현이며,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 내용은 물론이고, 방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 학교 교육에 가장 중요한 학습 도구이다. 더욱이 초등 사회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실제 삶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먼 과거 사이에 다리를 놓아 과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다양한 역사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터하여 현행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 교과서가 주요한 구성 방식으로 표방하고 있는 인물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과서 서술의 중심에는 정보 제시형, 사건 나열형의 인물사 뿐만이 아니라, 내러티브 중심의 교과서 서술과 역사 탐구학습 구성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역사 인물의 생생한 모습을 학습자들이 재현할 수 있는 역할을 교과서가 해주어야 한다. 특히, 예로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의 구성 방식은 '생활사'와 더불어 '인물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을 때, 초등 역사수업에서 역사 인물을 통한 수업 본질 구현을 위해서는 교과서에서의 인물사 구성의 본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적합한 교과서로서 인물사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초등 사회과 역사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고, 그 본질에 충실하게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사학습을 시작하는 초등학생들이 역사를 배우는 즐거움을 깨달아가고 그 이해를 깊이 있게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 &lt; 참고 문헌 &gt;

- 강선주(2011a). 5학년 역사 내용 구성 방향. 역사교육. 117.
- \_\_\_\_\_(2011b). 4, 5학년생의 역사 개념과 초등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 역사교육논집. 47.
- 교육과학기술부(2010). 사회과부도. ㈜두산동아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사회 5-1, 5-2. ㈜두산동아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사회과탐구 5-1, 5-2. ㈜두산동아
-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교육과정(2012-14호 고시).
- 김정호·박진동·장득진·천규승·홍후조(2006). 사회과 교과서 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6-3.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김환길(1990). 행위설명이론과 역사학습에서의 인물지도. 역사교육. 48.
- 김홍수(1996).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등장한 인물에 관한 연구. 초등사회과교육. 8.
- 김홍수·최용규(1998). 초등학교 국사교육의 인물 선정 연구. 역사교육. 65.
- 민 윤(2011). 초등역사교육과정 개정과 사회과 성격의 재정립.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 박동원(1996).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 영역의 인물사 지도문제. 초등사회과교육. 8.
- 박진동 외(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C 2012-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방지원(2011). 초등 역사교육에서 생활사 내용 구성. 역사교육. 119.
- 송춘영(1975). 고등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방안. 역사교육. 18.
- \_\_\_\_\_(1981). 국민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인물학습 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역사교육논집. 2.
- \_\_\_\_\_(1982). 인물교재의 교육적 기능과 그 지도방안. 대구사학. 20.
- 송춘영·이창욱(1977). 중학교 국사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인물지도의 접근방안. 역사교육. 22.
- 송춘영 외(1995). 한·일 양국의 초등 사회과 역사교재의 비교 연구. 대구교대논문집. 28.
- 양정현(2011). 2007, 2011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 논리와 계열성. 역사교육. 120.
- 이명희(2002). 초등사회과 역사교육에서 인물학습의 의의와 방법. 초등사회과교육논총. 4.
- 이운발(2007). 초등 사회과의 역사 수업에서 주제 중심적 내용 재구성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4(2).
- 최용규·안재경(1999). 인물학습의 이론과 실제. 사회과학교육연구. 3.
- 하경수(2006). 한국-프랑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비교 연구 -역사 교육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3(1).
- 木村茂光(2011). *これでわかる 歴史人物 小学 4-6年*. 文英堂.
- Bouvet, Christian, Martin, Jacques(1996). *Histoire/Géographie*, Hachette.
- James A. Bank, Richard G. Boehm, Kevin P. Colleary, Gloria Contreas, A. Lin Goodwin, Mary A. Mcfarland, Walter C. Parker(2003). *Our Nation* Mc Graw Hill.